MIRAE ASSET
미래에셋증권

Market Insight
2026.1.9

Mirae Asset Research AI

본 조사분석자료는 인공지능(AI)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,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습니다. 본 자료 마지막에 안내된 중요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[감수]
김주연
Jooyoun.kim@miraeasset.com

AI 데일리 글로벌 마켓 브리핑

순환매 속 미 증시 혼조..다우↑, 나스닥↓

- 미 증시 혼조..다우 0.6%↑, 나스닥 0.4%↓
- 트럼프 국방예산 증액 제안에 방위산업주 급등
- 미국 무역적자, 16년만의 최저치 기록

Summary

1월 8일(현지 시각) 뉴욕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함.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0.55% 상승해 49,266.11에 마감했음. 이에 반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0.4% 하락한 23,480.02에 거래를 마침. S&P500 지수는 0.01% 상승한 6,921.36에 마감했으며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2000 지수는 1.11% 상승한 2,603.91에 거래를 마침. 이 날 시장에서는 기술주에서 여타 경기 순환주로 무게 중심이 옮겨가는 순환매 흐름이 뚜렷했으며 반도체주의 하락과 방산주, 에너지주, 유통주 등의 강세가 특히 대조적이었음. 이 날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미국의 무여수지를 공개했는데 미국의 무역 적자 규모가 294억 달러를 기록해 전달 대비 39% 줄며 2009년 이후 16년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음. 수출이 증가한 반면 수입이 감소한 영향으로 특히 의약품 수입이 급감했는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1일부터 의약품에 대해 100% 품목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던데 따른 결과로 풀이됨. 이외 뉴욕 연은은 12월 소비자 기대 설문 조사 결과 향후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전달 대비 0.2% 올라 3.4%를 기록했다고 밝힘. 같은 조사에서 실직 후 3년 이내 새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확률은 43.1%로 전달 대비 4.2% 포인트 급락해 2013년 6월 통계 작성 이후 최저를 기록. 인플레 기대가 상승하고 구직 자신감은 위축되고 있음을 보여줌. 이 날 발표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는 20만 8천건으로 예상을 하회. 다만 전 주에 비해 증가했으며 일주일 이상 연속으로 실업수당을 청구한 연속 청구 건수는 전 주 대비 5만 6천건 급증. 한편 전 거래일 트럼프 대통령이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금지하겠다고 선언하며 급락했던 방위산업주는 이 날 일제히 반등.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미 방위비를 1조 5천억 달러로 올해보다 50% 증액하겠다고 밝힌 영향. 투자자들은 하루 앞으로 다가온 12월 고용보고서에 주목.

(다우 +0.55%, 나스닥 -0.44%, S&P500 +0.01%, 러셀2000 +1.11%)

특징종목

전 거래일 애플을 제치고 시가총액 2위 자리에 올랐던 알파벳(+1.07%)은 이 날 추가 상승해 애플과의 격차를 벌임. 애플(-0.50%)은 이 날도 소폭 하락해 7거래일 연속 약세를 유지함. 아마존(+1.96%)은 AWS의 지속적인 성장세와 소매 사업에서의 효율성 확보에 대한 기대가 이어지며 4거래일 연속 상승. 엔비디아(-2.15%)는 H200 인공지능 칩을 구매하려는 중국 고객사들에게 대금을 선납해야 하며 중간 계약 취소가 불가한 것으로 안내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자 중국 반도체 수출 전망에 대한 의구심이 커진 가운데 하락. 포드(+4.80%)와 GM(+3.93%), 스텔란티스(+2.50%)까지 자동차주가 동반 강세. 파이퍼샌들러가 이들에 대한 올해 실적 추정치 상향 가능성이 높다며 투자의견을 '중립'에서 '비중확대'로 상향한데 따른 움직임. 한편 GM은 장 마감 이후 공시를 통해 지난해 4분기, 전기차

사업 축소와 중국 내 구조조정 노력과 관련, 71억 달러의 특별 비용을 회계 처리 할 예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시간외 거래에서 1% 이상 하락 중. 테슬라(+1.02%)는 3거래일만에 반등. 한편 AI발 슈퍼 사이클에 대한 기대로 연일 상승했던 반도체, 스토리지 관련주 등은 차익 매물 출회-순환매 흐름 속 일제히 하락. 마이크론 테크놀로지(-3.69%), 인텔(-3.57%), 브로드컴(-3.21%), AMD(- 2.54%), 샌디스크(-5.38%), 웨스턴 디지털(-6.10%), 시게이트 테크놀로지(-7.72%). 전 거래일 트럼프 대통령의 배당/자사주 매입 금지 경고에 급락했던 방위산업주는 이 날 급반등.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도 미국 방위비를 올해보다 50% 올린 1조 5천억 달러로 증액할것이라고 밝힌 영향. 록히드마틴(+4.34%), 노스롭 그루만(+2.39%), L3 해리스(+5.16%), 제너럴 다이내믹스(+1.68%).

채권, 외환 및 상품 동향* 6시 10분, KST 기준

미 국채 금리는 뉴욕연은 소비자 기대 조사에서 단기 기대 인플레가 상향되는 등 고물가, 고금리에 대한 전망이 반영되며 장단기물 공히 상승. 10년물 국채 금리가 4.18%로 3.4bp 상승했고 2년물 금리 역시 3.49%로 2.3bp 상승. 외환 시장에서는 달러 지수가 98.923으로 0.24% 상승. 고물가 지속에 대한 전망과 더불어 지난해 10월 무역 수지 적자 폭이 크게 감소한 부분도 반영. 유로/달러 환율은 소폭 하락했고 달러/엔 환율은 소폭 상승해 달러 대비 유로와 엔의 약세를 반영. 상품 시장에서는 WTI 원유가 하루만에 4% 이상 상승. 지속되는 지정학적 긴장과 에너지 수요에 대한 기대가 맞물린 것으로 풀이. 금 가격도 소폭 상승. 반면 은과 플래티넘은 매물 출회되며 하락.

Compliance Notice

-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인공지능(AI)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,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.

본 조사분석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인공지능(AI)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습니다. AI가 생성한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정보 취득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, 신중한 판단과 추가적인 검증을 권장합니다. AI가 생성한 조사분석자료는 자체 검증과정을 거쳤으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,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https://securities.miraeasset.com 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.